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본 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뜻’ 대로 하기 위해서다. 이 뜻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반영된다. 고로 <주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 이다.
2. <인간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 을 이룰 수가 없다. <주>가 ‘삼위의 몸’ 이 되어 그 뜻을 실행한다.
3. <주>가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4. <하나님의 최고 목적과 뜻>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세계, 휴거 역사’ 다. 이 최고의 목적과 뜻을 중심하여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이 생활 속에서 만사에 수천, 수만 가지로 이루어진

다.

5.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다.
6.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존재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목적’도 다르고, ‘뜻’도 다르다.
7. 누구나 사람은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영원한 구원역사>가 없고, 자기 목적과 뜻으로는 <영원한 희망>을 이룰 수 없다.
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상세계의 뜻’이며, 영원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9.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뤄 본 자>만이 하나님과 주의 뜻을 진정 귀히 여기고 더욱 주와 함께 행한다.
10.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의 뜻대로 행해 본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런 자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 뜻도 깨닫고 실천하여 이루게 된다.
11.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
12. <자기 뜻>을 이루면 ‘자기’로 끝나고 ‘육’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자기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된다. - 이것이 ‘육 평생, 영 영원히’ 남는다.

13.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시대 보낸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며, 그를 통해 핵심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를 믿고 주를 따라 행한 자들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자들’이다.
14.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더 쉽고, 더 좋고, 더 이상적이다.
15.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16.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되어 그리도 좋고 이상적이다.
17.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도 하고, 〈자기 뜻〉을 실천하기도 한다. 〈자기 뜻〉을 실천했을 때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을 때도 좋으나, 〈자기 뜻〉만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다. 그 희망도 기쁨도 ‘육에 속한 것들’이다.
18.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6000년 동안 종교 역사를 해 왔다.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됐다.

19.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역사’ 다.
20.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방법이 다르다.
21. <하나님의 뜻>은 차원 높고, 이상적이다. <사람의 뜻>은 모든 것을 행했어도 이상적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22. <하나님이 보낸 자>는 매일 ‘하나님의 뜻’ 을 행한다. <행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 을 이룬다.
23. <주>는 홀로 행하지 않고, 그 지체들, 곧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실천’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24.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다.” 한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25.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의 삶>을 잊으면, 자기 방법대로 간다.
26. <휴거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 을 알고 주와 함께 계속 그 뜻을 펴 나가야 된다.
27. <실천>이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실천>이다.
28. <실천>은 ‘생명의 역사’ 을 낳고 ‘표적의 역사’ 를 일으킨

다.

29. <구약> 때, <신약>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 그 뜻을 ‘실천’해야 된다.
30. 주와 함께 날마다 실천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31. 다른 종교들을 보면, <자기 뜻>만 실천하다가 ‘서산의 하루 해’가 되고 말았다. <끝나는 역사>가 됐다.
32.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했기에 이상세계를 이루며 가고 있다. 그리고 영영하다.
33. <사사로운 개인의 뜻>은 ‘만물’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전달되지만, <근본의 뜻>은 ‘주’를 통해 암암리에 전달된다.
34.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위대한 역사의 일들이다.
35.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모른다. 오직 ‘실천자’만 알고 감격 감사하고 뜻을 이루며 간다.